

광주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요충지’로 급부상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로 국내 유망 팹리스(반도체설계) 기업과 정보기술(IT) 인프라 기업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부품인 인공지능(AI)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광주에 둠지를 틀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은 물론 기존 유치기업들과 협력으로 광주시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의 주요 무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팹리스 기업 ㈜디노티시아, ㈜아이닉스, ㈜쿠오핀과 정보기술 인프라 기업인 ㈜케이티엔에프, ㈜명인이노 등 5개 기업과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업무협약’(275-279번째)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정무경 ㈜디노티시아 대표이사, 황정현 ㈜아이닉스 대표이사, 이상훈 ㈜쿠오핀 대표이사, 김상수 ㈜케이티엔에프 전무이사, 정진용 ㈜명인이노 부사장을 비롯해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5개 기업은 지역기업들과 협력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광주시는 인공지능 인프라 지원, 전문 인재 양성, 관련 기관·기업 연계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국내 유망 팹리스 기업인 ㈜디노티시아, ㈜아이닉스, ㈜쿠오핀은 광주시 팹리스 유치기업에 가세, 총 9개 팹리스 기업이 광주에서 AI기술을 뿜내게 됐다.

이들 기업은 각각 거대언어모델(LLM),

팹리스기업 (주)디노티시아(주)아이닉스(주)쿠오핀과 협약... 9곳으로 늘어

미래차·제조업 등 광주 주요산업과 융합 기술혁신 등 파급효과 기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1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정무경(주)디노티시아 대표이사, 황정현(주)아이닉스 대표이사, 이상훈(주)쿠오핀 대표이사, 김상수(주)케이티엔에프 전무이사, 정진용(주)명인이노 부사장과 광주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영상산호처리(ISP), 영상전송, 원격관제에 특화된 반도체 개발에 강점이 있어 미래모빌리티, 제조업 등 광주시 주요 산업과 융합해 기술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기술(IT) 인프라기업인 ㈜케이티엔에프, ㈜명인이노는 기업의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제품 실증에 필요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지원권 역할을

한다. 지역 내 인공지능 전용 서버의 공급 범위를 넓히고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서비스 구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 제공으로 광주시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대표들은 “광주는 정부 지원, 인프라, 산업융합, 비용절감, 기관·기업과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인공지능 중심도시”라며 “광주시 인공지능 기반시설과 인재를 활용해 기술력과 시장경쟁력

을 키우고, 지역기업과 협력해 기술과 산업이 연계된 생태계 기반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가족이 되어준 기업들을 환영한다”며 “5개 기업의 기술력이 광주의 인공지능은 인프라, 정책과 만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지역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30일 목포서 전남일자리박람회

조선업·식품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148명 채용 목표

전라남도는 오는 30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2025 상반기 전남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조선업·식품제조업·관광숙박 등 다양한 분야 28개 기업에서 148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업 대상자는 일반 구직자, 대학생(졸업예정자), 특성화고 학생 등이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청, 보훈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박람회를 지원한다.

실제로 영암의 (유)송운산업, (유)효양 등 조선업 분야 7개 기업이 용접, 포설, 취부 등 직종에서 4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식품 제조기업인 ㈜동원F&B, 삼진물산㈜, ㈜대창식품, 농업회사법인 다솔 등은 생산직과 사무원 등 60명을 모집한다.

에이치제이디오션리조트㈜와 ㈜자은오션랜드는 프린트 직원과 조리사 등 관광서비스 분야 11명을 선발하고, 화학물질 제조업체 ㈜로우카본도 생산직, 연구원 등 10명을 채용한다. 케이씨㈜는 전기 공무직, 생산 운전원 3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세히보기

구직자는 30일 박람회장에서 이력서를 지참해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행사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전남일자리종합센터 서부플랫폼(061-287-1142)과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람회장에서 또 한전KDN, HD현대산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구직자를 위한 취업 전략’이란 주제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력서 사전 촬영, 힐링 상담 테라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많은 구직자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고 뜻깊은 성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상의, 가전기업 인력난 해소·근로환경 개선 지원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가 올해부터 지역 가전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전내일청년 특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 지원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의 핵심산업인 가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가전산업 관련 제조기업과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사업은 크게 기업지원과 청년지원 두 분야로 나누어 운영된다.

기업지원 분야는 청년 신규채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용장려금, 청년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워크업 사업, 휴게시설 등 복지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공동이용시설 개선 사업으로 구성된다.

청년지원 분야는 신규 입사자의 초기 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안착지원금과 가전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

는 성장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채용장려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안전워크업 사업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공동이용시설 개선 사업은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비용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이와함께 청년 대상 지원사업인 안착지원금의 경우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 및 6개월 이상 근무 시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성장지원금은 2년이상 3년 이하 재직한 청년이 2개월 및 5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가전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과 고용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4-26일 서울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2025 월드IT쇼’에 참가, ‘투자유치 홍보관’을 공동 운영한다.

올해 17회째를 맞는 ‘2025 월드IT쇼’는 국내·외 ICT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는 국내·외 5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와 광주경제청은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판, 광주’ 슬로건을 내건 ‘공동 홍보관’을 통해 광주의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알리고, 국내·외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주는 AI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친환경 모빌리티, ICT 융복합 산업 전반에 걸

국내 최대 ‘월드IT쇼’ 참가 광주시 “광주로 오세요”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 홍보관 운영... AI·미래차산업 집중 홍보

투자 상담·산업단지 분양·기술 전시 등 실질적 투자유치 활동 펼쳐

쳐 미래 지향적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이 광주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 협력 모델 등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국가AI데이터센터 공동 ▲광주AI융복합지구(첨단3지구)·빛그린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4년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 선정 ▲미래차국가산단 지정 ▲퓨리오사AI 등 반도체 팹리스 기업 유치 성과 등 광주가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성과들을 알린

다.

이와 함께 기업 맞춤형 산업 입지 제공,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체계 등 실질적 투자유치를 위한 1:1 기업상담도 진행한다.

특히 홍보관에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가 광주 핵심 산업단지인 AI융복합지구 분양 및 입주 상담도 진행한다. 광주에 본사를 둔 ‘썬데이브’와 ‘썬보다’는 자사의 AI 서비스, 드론 기술 관련 플랫폼을 직접 전시하고 기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신종팔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